



국립광주박물관회 창립 1년

세계적인 박물관은 민간 주도 박물관 후원회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영국 대영박물관도 그렇다. 세계 각국 후원자들이 모여 결성된 '대영박물관 친구들'이라는 후원회가 박물관 문화 행사를 주도해 운영한다. 소장품 구입 지원과 연구사업 등도 후원한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도 마찬가지다. 각계 인사들이 모여 후원회를 결성하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로 작품 등을 구입해 기증한다. 단순 후원자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의 친구로 함께하며 세계에 박물관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25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회가 대표적이다.

국립광주박물관에도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 지난해 2월 창립, 정식 법인 등록을 마

치고 활동하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회다. 지역 국립박물관 중에서는 국립대구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만들어졌다.

국립광주박물관 개관 초창기 광주박물관회가 결성돼 운영했지만 명맥이 끊겼던 것을 아쉬워하던 조현종 관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박물관회 창립을 주도했다.

회장 김성산(금호고속 대표이사)씨를 비롯해 우제길(화가, 우제길미술관장)·윤길(전 광주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윤장현(아이안과 원장)씨 등 부회장과 이사진 8명이 주축이다. 현재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아직은 결음마 단계지만 주위의 관심은 뜨겁다. 지난 한해 동안은 박물관대학과 문화유적

“박물관과 친구하실래요”

박물관 대학·전시 후원... 지역 전통문화 알리기 앞장 올 첫 답사는 일본 교토·오사카 유적지... 회원 모집도

답사 및 전시를 후원하면서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썼다.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진행했던 광주박물관대학은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외규장각 의궤' '질감성의 보물' '2000년전의 타임캡슐' 등 특별전이 열릴 때마다 개막과 폐막을 함께하고 전시를 홍보하면서 국립광주박물관이 한해 관람객 50만명을 돌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올해도 국외유적답사와 체험프로그램 등 박물관을 유물창고가 아닌 놀이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는 4월17일부터는 수요강좌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 '한국의美'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순천 정원박물관에 갔다. 특별전 '남도문화전 IV-순천'도 후원할 계획이며 각종 답사와 회원 교육도 준비 중이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유적답사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첫 답사지로 일본 나라·교토·오사카의 유적과 건축가 I.M.페이가 설계한 미호뮤지엄을 방문하게 된다.

앞으로 박물관 학습자료 및 조사연구, 사회교육, 국제교류 등을 후원하고 공익적 문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종 관장은 “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며 “박물관의 전시·연구·교육·문화사업 등을 돕고, 전통문



국립광주박물관회가 올해 박물관 관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박물관후원회가 진행한 구례 화엄사 답사 모습.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화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광주박물관회는 박물관과 함께할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은 일반회원(연회비 2만원), 가족회원(5만원), 특별회원(20만원), 기부회원(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회원에게는 특별전 도록 제공, 유적 답사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570-707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클래식을 더 가까이... ‘풍당 클래식’과 함께해요”

호신대 2기회원 모집... 이론·공연 16주 과정

지난해 '풍당 클래식'을 처음 진행했던 작곡가 김승일씨와 호신대 임혜철 교수는 참여자들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 클래식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터라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100여명이 넘는 이들이 강좌를 듣고 클래식과 조금씩 친구가 되어갔다.

호신대 평생교육원이 풍당클래식 2기 회원을 모집한다.

풍당클래식은 김승일씨와 임혜철씨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클래식 길라잡이'와 '렉처 콘서트'로 진행된다.

렉처콘서트는 지역의 대표 연주자들이 꾸미는 대화가 있는 연주회다.

김영인 광주시향 부지휘자가 강사로 참여하는 관현악 이야기를 비롯해 이종만(바이올린), 박문경(첼로), 이현경(플루트), 서용일(트롬본), 김용석(타악)씨 등 광주시향교향악단원들이 각 악기와 관련한 음악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피아노(박재연·문현옥), 성악(박계·김남경·조효종), 합창(박현주·이어진), 현대음악(한경진), 국악(성심은)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공연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씨가 이끄는 서울스프링실내악스텝 공연과 부산시향 상임 지휘자 리 신



김승일



성심은



박계

차오가 지휘봉을 잡은 광주시향 공연을 관람했었다.

2기 강좌는 23주 과정이 다소 길다는 의견이 있어 16주로 단축했으며 강의시간도 금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수강료는 7만5000원이며 모집 기간은

28일까지다. 개강은 3월 4일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예음홀에서 열린다.

김승일 교수는 “처음 프로그램을 개설한 이유가 스스로 광주의 음악회를 찾아가는 클래식 애호가들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었다”며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요즘 연주회에서 회원들을 만날 때마다 가능성을 보는 것같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문의 062-650-15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종이판화에 새겨진 ‘새야 새야’

최용호 개인전, 내달 30일까지 선이고운치과 갤러리

판화로 만든 일러스트 작품은 어떤 느낌일까?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판화 작가인 최용호씨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선이고운치과 갤러리에서 다음달 30일까지 '새야 새야' 전시를 연다.

최씨는 이번 전시에서 종이 판화로 제작한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고구려 신화에 등장하는 삼족오를 비롯한 제비 등 평소 그가 새긴 새들이 종이 질감과 함께 잘 표현됐다.

최씨는 늘녘 출판사의 'Illusionist' 세계의 작가' 시리즈를 비롯해 그동안 그림책과 동화, 소설 등 100여권의 책 표지와 원화를 주로 디자인해 왔다. 컴퓨터나 붓보다는 종이 판화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독특하다.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판화로 일러스트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판화의 질감과 표현력을 버릴 수 없다”며 “목판은 색의 중간 톤을 만들기가 어려워 주로 종이로 작업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367-227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엉이들 (owls)'

사진예술의 혼, 자연 숨소리 담아

광주사진클럽 정기회원전, 24일부터 카페갤러리 아하바

광주사진클럽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카페갤러리 아하바에서 '2013년 제4회 정기회원전'을 연다.

지난 2008년 결성된 광주사진클럽은 순수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모임으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장 박영진씨를 비롯해 황지원, 황금동, 손하석씨 등 회원 20명이 지난 한해 동안 카메라에 자유롭게 담은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광주사진클럽은 매달 1차례 정기출사와 친목 모임, 영정사진 봉사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난해 전시회 수익금을 아프리카 난민 돕기에 사용하기도 했다.

박영진 회장은 “사진예술의 혼을 되새키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자연의 숨소리를 표현해 내는 동호회로 성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의 529-0233.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수진 작 '기상'

23일 무형문화재 ‘이애섭의 節食’ 개최

남도의례음식장에게 전통세시음식 이야기 듣고, 직접 절편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23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전통문화관 달맞이 가자' 행사의 일환으로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섭의 절식(節食)'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양한 세시음식인 절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절편 만들기 체험도 함께해 본다.

남도의례음식장 이애섭 보유자는 5대 조모(장흥 고씨)로부터 모친 윤영면(파평 윤씨)과 시어머니로 이어지는 가계전승의 맥을 이었다.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